유엔 전문가, 미국 대학생 사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감옥 내 처우 반영

제네바 (2017년 6월 16일)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이하 “특별보고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구금자 인권을 존중하도록 촉구했다. 이번 주 초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석방되었다.

오토 웜비어는 지난해 평양 여행 중 체포된 후 ‘반공화국 적대 행위’ 모의 혐의로 15년 형을 선고받았다. 수감 중 교도관이 준 수면제를 먹고 2016년 3월부터 혼수상태에 빠졌다고 알려진다.

“석방 소식을 환영하는 한편, 오토 웜비어 건강 상태에 상당한 우려를 표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국은 혼수상태에 빠진 이유를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고 특별보고관은 말했다.

이어 “오토 웜비어 사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수감자가 의학적 치료를 적절하게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끔찍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에서 운영되는 감옥 관련 정보는 거의 부재하다. 유엔 조사위원회는 2014년 해당국 전역에 위치한 시설 내에 수 천 여명이 일상적으로 구금되며, 비인간적인 조건 속에 갇혀 고문과 강제 노동을 겪는다고 밝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가장 중대한 범죄를 처벌하고자 정치범 수용소를 최대 다섯 곳까지 운영한다고 알려진다. 외국 국적자도 정치적 이유를 근거로 해당국 내 구금되어 있는데, 올해 미국 국적 대학 교수 두 명이 평양에서 반공화국 행위 모의 혐의로 체포되었다.

특별보고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국이 처음부터 오토 웜비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오토 웜비어가 체포됐을 때 영사 접견을 허용하거나, 직접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등 기본 권리를 보장했다면, 작금의 상황을 초래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특별보고관은 말했다.

특별보고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서명한 다섯 개의 국제인권협약 및 영사관계 비엔나 협약(1963)이 앞서 언급한 기본 권리를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오토 웜비어 석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급격한 건강 악화로 말미암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석방을 결정했을 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석방 이유와 상황을 분명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특별보고관은 주장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국에 국적과 무관하게 내외국인 수감자 모두를 보호하길 촉구한다.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었다면 죄목과 상관없이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석방을 고려해야 한다”고 특별보고관은 말했다.

끝

***토마스 오헤나 퀸타나*** *(아르헨티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http://www.ohchr.org/EN/HRBodies/SP/CountriesMandates/KP/Pages/SRDPRKorea.aspx)으로 2016년 유엔 인권이사회 임명을 받았다. 인권 분야에서 20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변호사로 미주인권위원회에서 변호사로 근무했으며, 아르헨티나 군부 독재 시절 아동 납치 문제를 다룬 비정부기구 마요 광장의 어머니들 (Abuelas de Plaza de Mayo) 대표로도 활동했다. 볼리비아 내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인권 프로그램을 총괄한 바 있으며,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미얀마 내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직을 역임했다.*

*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제도](http://www.ohchr.org/EN/HRBodies/SP/Pages/Welcomepage.aspx)로, 특별절차는 유엔 인권 제도 하에서 가장 많은 수의 독립전문가가 참여한다. 특별절차는 특정국가 인권 또는 전세계에 적용하는 특정인권주제를 다루기 위해 인권이사회가 독립적으로 사실 관계를 규명하고 모니터링하는 제도를 가리킨다.특별절차 전문가는 유엔 직원 신분이 아니고 무보수로 자발적인 임무를 수행한다. 또한 여타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며 개인 역량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유엔 인권 국가별 웹페이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http://www.ohchr.org/EN/countries/AsiaRegion/Pages/KPIndex.aspx>*

*서울유엔인권사무소 웹페이지: <http://seoul.ohchr.org/EN/Pages/HOME.aspx>*

*추가 정보 및 언론사 영어 문의는 Tarek Cheniti**(+82 2 725 3522/ [tcheniti@ohchr.org](mailto:tcheniti@ohchr.org)), 한국어 문의는* ***안윤교*** *(+82 2 725 3523 / [yahn@ohchr.org](mailto:yahn@ohchr.org))로 문의주십시오.*

기타 유엔 위임권한 관련 **언론사 문의**는 아래 언론 부서(Media Unit) 담당자로 문의해 주십시오.

사비어 셀라야(Xabier Celaya) (+ 41 22 917 9383 / [xcelaya@ohchr.org](mailto:xcelaya@ohchr.org))

**보도자료는 [온라인](http://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1732&LangID=E)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위터 계정:** [@UNHumanRights](http://twitter.com/UNHumanRights) 및 **페이스북 계정:** [unitednationshumanrights](https://www.facebook.com/unitednationshumanrights)

우리가 사는 세상이 더 나아지길 바라시나요? **다른 이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스탠드업**

**(STAND UP)” 목소리를 내주세요.**  스탠드업(#Standup4humanrights) 웹사이트(<http://www.standup4humanrights.org>)에 방문해주세요.